‘빅스포’ 폐막…기업 해외 진출 가교 ‘톡톡’

수출상담 205건·1조8천억원 중기 167억원 구입계약 체결 국내외 8만1천여명 방문 지역경제유발효과 1578억원

한전이 개최한 빅스포 2018이 ‘빅스포 어워드’를 끝으로 성황리에 폐막했다. 김종갑 사장이 빅스포 어워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제공〉

세계적인 종합에너지 박람회인 ‘빅스포(BIXPO) 2018’이 성황리에 폐막했다. 각종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두고 지역 내 경제유발효과에도 기여하는 등 전력분야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로 치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2018’(빅스포 2018)가 ‘빅스포 어워드’(BIXPO A-WARDS)를 끝으로 성황리에 폐막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은 빅스포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가교 역할을 했다.

3일간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 기업 내 실무자간 수출상담이 총 205건 진행됐다. 수출 상담 금액만 1조 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약 16억 달러로, 이밖에 21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여기에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열린 수출 협약체결식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이 10개국, 20여명의 해외바이어들과 총 1500만 달러(167억 7000만 원 상당)의 구입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국내외 8만1000여명의 빅스포 행사장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관계자와 국내 관람객 이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해 숙박과 식사, 교통 등 지출이 발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날 한국관광공사가 산정한 빅스포 2018의 경제유발효과는 광주·전남지역 1578억원으로, 전국적으로 22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전을 비롯한 40개 기업이 참가한 에너지밸리 일자리 박람회에는 7000여명의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방문해 상담과 면접을 받았다.

개막 첫날 ‘THE DIGITAL TRANSFORMATION PLAYBOOK’의 저자이자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데이비드 L.로저스가 ‘디지털 변환과 미래에너지 산업’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 “디지털 변혁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전략의 문제다. 에너지 기업들이 기존의 경쟁관계에서 벗어나 상생협력과 사회적가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밖에 빅스포 어워드에서는 국내외 VIP와 국제발명특허대전, 스타트업 경진대회 수상자 등 4000여명이 참가했으며, 국제발명특허대전에서는 특허왕(세종대왕상, 에디슨상, 장영실상각 1명)과 해외발명협회 특별상 등 총 7개 부문에서 87개 팀이, 글로벌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는 총 4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 빅스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전력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져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등장도 많았다는 게 한전 안팎의 평가다.

김종갑 사장은 “시대의 거대한 흐름인 ‘에너지전환’과 ‘디지털변환’을 전 세계 전문가들과 다함께 짚어보고 에너지의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며 “빅스포는 대한민국 에너지기술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우수 전력기업이 해외시장으로 널리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박기웅 기자 lion@kwangju.co.kr

제네시스 전세계 판매 20만대 돌파

브랜드 출범 3년만에 …이달말 G90 출시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사진〉가 출범 3년 만에 전 세계 판매 20만대를 돌파했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 브랜드는 지난달 내수시장과 수출 시장을 합쳐 8429대를 판매하며 2015년 11월 브랜드 공식출범 후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판매 20만6882대를 달성했다.

브랜드 출범 3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만대를 돌파한 것이다.

제네시스는 출범 첫해 555대를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5만8916대, 2017년 7만8889대로 꾸준히 판매를 늘려왔다.

올해에도 1~10월 누계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한 6만8만522대를 기록하며 연간 판매 8만대를 넘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판매량을 모델별로 보면 대형 세단인 G80가 내수와 수출을 합쳐 총 12만7천283대로 제네시스 라인업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어 초대형 세단 G90(국내명 EQ900)가 5만2417대,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스포츠 세단 G70가 2만7182대로 뒤를 이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이달 말 종전 EQ900의 페이스리프트(부분 변경) 모델을 G90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주력 모델인 G80 풀체인지(완전 변경) 모델과 함께 제네시스의 첫 번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GV80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삼성전자, 글로벌 가전브랜드 최고 선정

3년 연속 명단 올라

삼성전자가 올해 전 세계 가전 브랜드 가운데 최고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 비영리단체 ‘월드 브랜딩 포럼’이 최근 발표한 ‘2018-2019 월드 브랜딩 어워드’에서 삼성전자는 소비자가전(TV) 부문에서 글로벌 수상자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이후 3년 연속으로 가전 부문 ‘글로벌 브랜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는 ‘월드 브랜딩 어워드’는 글로벌(Global), 지역(Regional), 개별 국가(National)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한다.

올해는 57개 국가의 4500여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브랜드 가치와 전문가 설문조사, 10만명 이상을 상대로 한 투표 등을 통해 351개 브랜드를 선정했다.

삼성전자 외에 미국 아마존(온라인 소매), 애플(휴대전화), 페이스북(소셜미디어), 구글(검색엔진), 마이크로소프트(MS)(소프트웨어) 등 유력 IT 업체들도 부문별로 올해의 ‘글로벌 브랜드’로 선정됐다. 또 코카콜라(음료), 질레트(면도기), 할리데이비슨(오토바이), 메리어트(호텔), 맥도날드(패스트푸드), 나이키(스포츠용품), 스타벅스(커피 소매), 비자(신용카드), 롤렉스(시계), 로레알(화장품), BMW(자동차) 등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83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10	16	19	31	39	9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110,702,258	16
2	5개숫자 + 보너스 숫자일치	48,555,290	61
3	5개 숫자일치	1,113,486	2,660
4	4개 숫자일치	50,000	117,332
5	3개 숫자일치	5,000	1,849,959

전국상의 회장단 광주 회의

오늘부터 1박2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광주에서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한다.

4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8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가 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전국 상의회장단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통상 전문가인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를 초청,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도 연다.

전국 상의 회장단은 이날 오후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하고 일부 회장단은 ‘사랑의 식당’을 찾아 후원활동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은 3분기 누적수익 1414억 ‘최대실적’

전년비 17.5% 증가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018년도 3분기 당기순이익(공시기준)으로 507억원, 3분기 누적으로는 1414억원을 달성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7.5%, 3분기 누적으로는 10.7% 증가한 실적이다.

광주은행의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은 67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8.1% 증가했으며, 분기 중 NIM(순이자마진)은 전분기 대비 0.07%포인트 상승한 2.53%를 나타냈다. 경영효율성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은 전년 동기대비 1.76%포인트 개선된 47.11%를 기록,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1%로 전분기(0.65%) 대비 개선됐다. BIS자기자본 비율은 16.31%로 전년 동기대비 0.41%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1분기는 451억원, 2분기 456억원으로 안정적 순이익을 시현 중으로, 이번 발표한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실적은 전년 1350억원을 3분기 만에 상회하는 수치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성과는 광주·전남지역에서의 자산의 질적성장과 수도권 영업망의 안정화라는 투트렉(Two-Track) 영업 전략이 성공적으로 정착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디지털 역량강화로 비대면채널 영업이 확대되는 등 선제적인 경영혁신과 경영효율화 정책들이 가시화되면서 나온 성과로 향후 안정적인 수익 시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종욱 은행장은 “고객중심 경영을 이어가는 동시에 디지털 역량 고도화, 미래고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상품 출시 등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이달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광주은행을 아껴주는 고객과 지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것이다. 50년을 넘어 100년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